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281 |
|----------|-----|

발의연월일 : 2007. 11. 22.

발 의 자 : 전병배 의원외 11 인

1. 주 문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확정시 까지로 한다.

2. 제 안 이 유

- 2007년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 유치실패에 연이어 또다시 정부에서는 로봇랜드 조성 예비사업자로 인천과 경남 마산을 선정함으로써 잇따른 대형국책사업 유치실패로 대전 시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대전시민의 명예 회복과 역량을 결집하고 국책사업중 마지막 희망인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을 인식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정부가 2020년에 제5대 의료산업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주관 하에 추진되는 중요 국책사업으로 치료, 재활, 휴양서비스, 바이오,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의료와 휴양, 연구개발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 2008년부터 2037년까지 5조 6천억원의 예산투입과, 82조 2천억원의 생산증가, 38만 2천명의 고용창출과 의료산업의 확산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 신의약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 인프라와 기술혁신 역량이 전국에서 가장 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대전광역시가 명실상부한 차세대 선진 한국의 신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차별화된 논리개발, 시민여론 형성 등 경쟁 도시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특단의 유치전략 마련이 필요됨.
- 우리시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경쟁도시에 대한 유치계획 및 그간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분야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유치 확정시 까지 시의회, 직능단체, 기관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민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연이은 대형 국책사업 유치실패로 실추된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임.
-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150만 대전시민과 정치인, 시민단체, 학계, 사회단체 등이 합심하여 차질없는 유치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모색코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찬성의원서명

[illegible]